

이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초국가적 집합적 역량*

-김해시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를 중심으로-

정정훈 · 진윤주**

(부산외국어대학교 · 경성대학교)

1. 들어가며
2. 이주민 커뮤니티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
3. 김해시 미얀마 커뮤니티의 형성과 공간적 실천
 - 3.1. 김해시 미얀마 이주민의 유입과 분포
 - 3.2.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의 설립과 운영
4.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 새로운 역할의 부여
 - 4.1. 종교와 배움의 공간
 - 4.2. 정보와 초국가 연대의 공간
5. 나가며: 이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주민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커뮤니티 공간의 형성 과정과 사회적 기능을 에스노그래피적으로 분석한다. 경상남도 김해시의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를 사례로,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무실·쉼터·도서관으로 구성된 공동체 공간이 종교적 실천, 한국 사회·문화 및 노동권 학습, 일상 정보의 유통,

* 이 논문은 2025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25S1A5C2A02022622).

** 제1저자: 정정훈, 교신저자: 진윤주

본국과의 초국가적 연대라는 다층적 기능을 수행함을 밝혔다. 본 연구는 디아스포라·초국가주의·장거리 민족주의 논의와 역량접근법을 결합하여, 이주지에서 형성된 집합적 역량이 본국 구성원의 역량으로 환류하는 ‘초국가적 집합적 역량’ 개념을 제안한다. 2021년 군사 쿠데타로 귀환이 봉쇄되면서 공동체는 순환 이주자를 위한 일시적 안전망에서 장기 정주민을 지탱하는 지속적 사회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불리함의 군집을 해체하는 지원 정책과 이주민 주도 공간을 공공 서비스와 결합한 ‘정주 역량 강화 허브’로 공식화하는 방향을 제안하며, ‘청소’에서 ‘공존’으로의 이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한다.

[주제어] 이주, 이주민 커뮤니티, 정주 역량, 초국가적 집합적 역량, 미얀마 이주민, 역량접근법

1. 들어가며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고용허가제(E-9)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노동력 도입 정책을 본격화하였다. 법무부의 2025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 명을 상회하며, 그 가운데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는 전체 취업 외국인의 38% 내외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6). 하지만 한국의 이주정책은 외국인 노동자를 오랫동안 ‘정주하는 주체’가 아닌 ‘순환하는 노동력’으로 규정해 왔다(진윤주·홍문숙 2025). 사업장 변경 제한, 가족 동반 불가, 단기 체류 기간 설정 등의 제도적 장치는 이주민의 장기 정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이주민의 삶의 질이나 정주 과정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얀마 출신 이주민은 특별히 주목된다.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2021년 이래로, 미얀마의 정치·경제적 위기와 내전의 장기화는 한국 내 미얀마 이주민에게 본국으로의 귀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단기 노동 이주자라는 기존의 범주를 넘어, 한국을 실질적인 삶의 터전으로 재정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을 수용하는 한국의 제도적 기반과 시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취약하다. 체류자격의 불안정, 사업장 이동의 제약,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의 배제는 이주민의 삶 전반에 걸쳐 누적·연쇄하는 구조적 불리함으로 작동한다(Wolff & de-Shalit 2007).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미얀마 이주민은 생존과 적응을 위한 자구적 실천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ရွှေအလင်းတန်းမြန်မာအသင်းကိုရီးယား)’는 2009년 설립 이후 부산·울산·경남 지역 미얀마 이주민의 실질적 생활 거점으로 기능하며, 무료 쉼터, 도서관 운영, 노동법 및 한국어 교육, 미얀마 전통 문화 행사, 본국 긴급 지원 등 다층적 활동을 전개한다. 공동체의 활동은 단순한 친목의 장이 아니라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이 재생산되고, 권리 정보가 유통되며, 초국적 연대가 실천되는 복합적 공간이다.

그럼에도 이주민 커뮤니티의 공간적 형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 한국의 다문화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재중동포 집단에 편중되어 왔으며, 동남아 출신 이주노동자 공동체, 특히 미얀마인 커뮤니티에 대한 논의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를 사례로, 이주민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커뮤니티 공간의 형성 배경과 공간적 특성을 기술한다. 또한 공동체가 수행하는 다층적 사회적 기능을 디아스포라·장거리 민족주의·역량접근법의 이론적 렌즈를 통해 분석한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공공 서비스와 결합한 정주 역량 강화의 거점으로 공식화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참여관찰과 심층 인터뷰를 연구방법론으로 활용한다. 참여관찰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의 정기 모임, 노동법 교육, 빈잔 물 축제 등 문화 행사, 공동체 사무실에서 서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층 인터뷰는 공동체 구성원, 지도부, 지원 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 후 전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 또는 역할 명칭을 사용하였다. 특히 본문에 인용된 ‘난사인’은 공동체의 설립과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해 온 핵심 연구참여자 1인의 가명이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디아스포라·초국가주

의·장거리 민족주의·역량접근법을 중심으로 이주민 커뮤니티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김해시 미얀마 이주민의 유입 배경과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의 형성 및 공간적 특성을 기술한다. 제4장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이 수행하는 다층적 역할을 구체적 실천 사례를 통해 분석하며,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이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언한다.

2. 이주민 커뮤니티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의

국제 이주에서 이주민 커뮤니티의 형성과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주를 노동력의 이동으로 보는 경제적 관점을 넘어,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실천과 정체성 형성의 과정을 포괄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귀환 가능성이 봉쇄된 미얀마 이주민의 상황은 순환 이주나 단순 노동이주의 범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본 장에서는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 그리고 장거리 민족주의를 통해 이주민 정체성과 초국가적 실천의 성격을 검토한다. 이후 역량접근법과 집합적·초국가적 확장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수행하는 다층적 사회적 기능을 분석한다.

디아스포라(diaspora) 개념은 본래 강제적 이산(離散)의 경험에서 비롯되었으나, 코헨(Cohen 1997)은 이를 노동·무역·문화적 디아스포라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장하였고, 사프란(Safran 1991)은 고국과의 지속적 연계, 귀환에 대한 열망, 집합적 기억의 유지를 그 핵심 요소로 규정하였다. 홀(Hall 1990)은 디아스포라 정체성이 고정된 기원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끊임없는 생산과 변형의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얀마 이주민 커뮤니티는 고국 문화를 단순히 재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착지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정체성과 연대를 집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장으로 이해된다.

나아가 초국가주의는 이주민이 출신국과 정착국 사이에 형성하는 복수의 사회적 공간과 네트워크에 주목한다. 쉴러(Glick Schiller et al.

1992)는 이주민이 정착국에 통합되면서도 출신국과의 정치적·경제적·사회문화적 유대를 유지하는 초국가적 사회장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와 긴밀히 연결되는 앤더슨(Anderson 1992)의 장거리 민족주의는 이주민이 물리적으로 고국을 떠나서도 민족적 정체성과 정치적 결속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김해시 미얀마 커뮤니티 역시 쿠데타 이후 군부에 대한 저항 운동을 지지하고 모금에 참여하는데, 이는 커뮤니티가 친목과 상호부조를 넘어 정치적 행위자로 기능하며 구성원에게 집합적 효능감을 부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치적 실천은 그 자체로 구성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하나의 역량 실현 양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에서 논의할 역량접근법과 맞닿는다.

이주민 커뮤니티의 사회적 기능을 평가하는 데 센(Sen 1999, 2013)의 역량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핵심적인 분석틀을 제공한다. 센은 삶의 질을 소득이나 자원의 보유량이 아니라 개인이 실제로 영위할 수 있는 기능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역량의 관점에서 평가할 것을 주장하였다. 중요한 것은 자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 기능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개인이 처한 개인적·사회적·환경적 전환요인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자원도 서로 다른 삶의 가능성으로 귀결된다.

누스바움(Nussbaum 2000)은 신체적 건강, 감각과 상상력, 감정, 실천이성, 유대, 놀이, 환경에 대한 통제 등 핵심 역량의 목록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민 커뮤니티는 구성원이 정착지에서 실질적 역량을 발휘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기반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센의 역량접근법은 분석 단위를 기본적으로 개인에 두고 있어, 인간이 집단적 존재로서 공동의 삶을 구성하고 역량을 형성해 나가는 방식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Evans 2002; Stewart 2005; Ibrahim 2006). 이러한 한계는 이주노동자와 같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분석할 때 특히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들이 직면하는 불리함은 개별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제도적 제약, 언어·문화적 장벽, 주거 불안정, 사회적 고립이 서로 맞물려 강화되는 방식으로 군집

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울프와 드샬리트(Wolff & de-Shalit 2007)는 이를 ‘불리함의 군집(clusters of disadvantage)’으로 개념화하고, 하나의 불리함이 다른 삶의 영역으로 확산되어 추가적인 불리함을 초래하는 연쇄적 불리함의 악순환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이 단독으로 해소하기 어려우며, 집합적 차원의 대응 없이는 개인 역량의 실질적 확장이 가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주민의 역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단위를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장하는 이론적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환을 시도한 일련의 연구는 ‘집합적 역량(collective capabilities)’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타인과의 연대와 구조화된 관계망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Evans 2002), 이주를 집단적 맥락이 약화·재구성되고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조건으로 파악한다(Stewart 2005). 나아가 집합적 역량을 개인 역량의 단순한 합산이 아니라 집합적 행위를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역량으로 분석한다(Ibrahim 2006). 이는 구조적 취약성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역량이 개인 차원의 접근만으로는 포착되지 않으며, 공동체를 매개로 한 집합적 역량 형성 과정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앞서 검토한 초국가주의·장거리 민족주의 논의와 집합적 역량 개념을 결합하여 초국가적 집합적 역량(transnational collective capabilities)이라는 분석 범주를 제안한다. 이는 이주지에서 형성된 집합적 역량이 출신국 구성원의 역량 집합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환류하는 실천, 곧 장학 지원, 재난 긴급 구호, 본국 피난민 지원 등을 포괄한다. 또한 이주민을 단순한 노동력 수출의 객체나 정착국의 수혜자가 아니라 초국가적 역량 생산자로 위치시킨다.

결국 본 연구는 구조적 조건의 급격한 변화가 집합적 역량의 성격과 방향을 재편하는 과정에도 주목한다. 순환 이주를 전제로 형성된 집합적 역량의 구조는 귀환 가능성이 봉쇄되거나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장기 정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집합적 역량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구성원이 처한 구조적 조건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재형성되는 역동적 과정임을 보여 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이주민 커뮤니티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상호부조 조직을 넘어 복합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디아스포라 이론은 커뮤니티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재구성하는 장임을, 초국가주의와 장거리 민족주의는 그것이 초국가적 연대와 정치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그리고 역량접근법과 그 집합적·초국가적 확장은 그것이 구성원의 실질적 역량을 공동으로 생성·확장하는 사회적 토대임을 각각 조명한다.

3. 김해시 미얀마 커뮤니티의 형성과 공간적 실천

3.1. 김해시 미얀마 이주민의 유입과 분포

경상남도 김해시는 한국 내 미얀마 이주민 커뮤니티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적 맥락을 제공한다. 김해시는 2020년 기준 전체 고용률 61.4%로 동남권 평균(56.4%)과 전국 평균(59.1%)을 모두 상회하며, 동남권 23개 지역노동시장권 가운데 고용률 상위에 위치한다(고영우 외 2023). 이처럼 높은 고용률의 이면에는 김해시 노동시장의 뚜렷한 구조적 특성이 자리하고 있다. 김해시의 2020년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33.9%로 동남권 평균(23.8%)과 전국 평균(18.4%)을 크게 웃돌며, 생산직 취업자 비중 역시 41.0%로 전국 평균(31.6%)을 상회한다. 반면 관리자·전문가 직종의 취업자 비중은 16.6%로 전국 평균(20.2%)에 미치지 못한다(고영우 외 2023). 이러한 수치는 김해시가 제조업 중심의 생산직 특화 노동시장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이는 저·중숙련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구조적 수요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김해시의 이러한 노동시장 특성은 전국 단위 통계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전국 시군구별 분포에서 전체 근로자의 40%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 경상남도(약 11%)와 충청남도(약 9%) 순이다. 기초 지자체별로 최다 체류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약 31,800명이며, 안산시(21,500명), 김포시(15,200명)에 이어

김해시가 13,500명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하였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6). 이는 비수도권 지역 중 최대 규모이며, 김해시가 단순한 개별 지역 사례가 아니라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의 공간적 분포에서 핵심적인 결절점에 위치함을 보여준다.

정현주(201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주민의 이동과 분포는 특정 장소가 가진 자산과 인프라, 그리고 그 안에서 작동하는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되며, 체류 자격·국적·민족에 따라 상이한 ‘이주의 지리(geography of migration)’를 구성한다. 김해시의 사례는 제조업 중심의 노동 수요 구조와 이주노동자 유입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정합적인 패턴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E-9)는 이러한 구조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도적 통로로 기능해 왔다.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노지현·구동희 2016).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제한, 가족 동반 불가, 단기 체류 기간 설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순환하는 노동력’으로 위치시켜 왔으나(진윤주·홍문숙 2025), 현실에서는 연쇄 이주와 장기 체류가 구조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특히 ‘성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에 의해 E-9 이주노동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9년 8개월에 이르게 되면서, 제도가 표방한 단기순환의 원칙은 현실의 작동 방식과 점차 괴리를 보이고 있다(유희연 2023).

이혜경 외(2020)는 이러한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가 일종의 ‘꽂 막힌 직업(dead-end job)’으로 작동하면서 더 좋은 단계로의 상승 기회가 없는 구조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해시의 경우 이러한 흐름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남 시군별 등록 외국인 비율은 2005년 창원시(28.9%), 김해시(21.7%) 순이었으나, 2010년 이후 김해시(24.2%)가 경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도 22.5%로 1위를 유지하였다. 이 기간 김해시 등록 외국인 수는 2005년 5,779명, 2015년 18,522명, 2025년 27,196명으로 증가하였다(김해시 통계포털).

미안마 이주노동자의 김해시 유입은 이러한 광역적 흐름 위에서 이해된다. 미안마는 2007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꾸준

히 한국으로의 노동 이주가 증가하였다. 2023년 3월 기준 E-9 이주노동자의 국적별 분포에서 미얀마는 23,613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7위에 위치한다(유희연 2023). 이는 캄보디아(13.9%), 네팔(13.5%), 베트남(11.1%), 인도네시아(10.8%), 태국·필리핀(각 8.4%)에 이어 미얀마가 한국 저숙련 이주노동의 핵심 송출국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E-9 이주노동자의 80.9%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91.2%가 남성이라는 통계는(유희연 2023), 김해시의 제조업 중심 노동시장 구조와 서부 주변 지역에서 관찰되는 극단적 남성 성비 사이의 정합성을 설명해 준다. 김해시 국적별 외국인 가구원 현황을 보면 우즈베키스탄·베트남·중국인 상위를 점하는 가운데 미얀마 이주민도 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 등 다른 동남아시아국가 출신의 이주민과 함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KOSIS 국가통계포털).

특히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심화되면서 본국 귀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김해를 비롯한 한국 내 거주지에서의 장기 정착을 현실적인 삶의 조건으로 재정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들에게 이주는 더 이상 한시적인 경제 행위라 아니라 삶의 전면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실존적 조건으로 전환되었다.

공간적으로 김해시 이주노동자는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도시 주변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노지현·구동회(2016)에 따르면 김해시 외국인 이주자는 상대적으로 지가와 지대가 낮아 공장과 주택이 입지하기 용이한 주변 지역, 즉 한림면·진례면·진영읍·주촌면 등 서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 패턴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생림면·상동면 등 북부 주변 지역에서도 2010년 이후 외국인 이주자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지역들의 성비는 극단적으로 높아 2015년 기준 생림면 1,896.2, 상동면 1,451.9, 한림면 1,401.0에 달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제조업 공장에 종사하는 남성 이주노동자가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 패턴은 앞서 살펴본 E-9 이주노동자의 전국적 분포 특성—수도권 남서부 축의 산업도시 및 비도시지역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집중—이 비수도권의 대표적 산업도시인 김해시 내부에

서 다시 한번 축소된 형태로 재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도심부에 해당하는 동상동과 서상동 일대는 외국인 이주자의 거주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 지역은 이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중요성을 지닌다. 조선시대 김해읍성 안에 위치하고 해방 이후 군청과 경찰서가 자리했던 이 전통적 중심지에는, 외국인 이주자들이 모여들면서 금융·복지·종교·상업시설이 집중되며 이른바 ‘외국인 거리’로 발전하였다(차철욱·차윤정 2013; 노지현·구동희 2016).

2008년 설립된 김해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은행, 음식점, 식료품점, 휴대폰 가게, 복지시설 등이 밀집한 이 공간은 이주노동자들이 주말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거점이자 정보 교환의 장으로 기능한다. 주목할 것은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의 사무실과 무료 컴퓨터가 서상동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공동체가 외국인 거리의 심장부에 자리를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이주민의 일상적 동선과 정보 흐름의 교차점에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접근성과 가시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실천적 선택의 일환이다.

이주노동자들의 공간적 집중은 연쇄 이주의 메커니즘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소수집단의 공간적 집중은 구성원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주의 초기에 구축된 다양한 정보가 다음 이민자에게 전달되는 연쇄 이주의 핵심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미얀마 이주민의 경우, 앞서 일을 시작하고 정착한 초기 이주자가 본국과 지속적인 교류 과정에서 김해시로의 이주가 이어지는 연쇄적 패턴이 반복되었다.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미얀마 이주민 집단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자발적 커뮤니티 형성의 물적 토대가 되었다. 공장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 체류자격의 불안정, 언어·문화적 장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동향인들 사이의 정보 공유와 상호부조에 대한 실천적 필요가 쌓여가며 2009년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3.2.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의 설립과 운영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는 2009년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미얀

마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비영리 사회공동체이다. 공동체의 설립은 어떤 외부 기관의 기획이나 정부 정책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낯선 사회에서 언어·제도·문화의 차이로 인한 고립감을 스스로 해소하고, 타국에서도 모국의 문화와 공동체 정신을 지켜가며 서로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공감에서 비롯된 자구적 실천이었다. 창립의 동력은 단순히 고향에 대한 향수의 표현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의 힘을 모아 미얀마 국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재난 피해 지역을 지원한다는 초국가적 목적 또한 설립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공동체 설립 초기부터 구성원들은 미얀마 전통 명절과 문화 행사를 함께 준비하며 유대감을 쌓아갔다.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돕는 상호부조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운데, 점차 종교·민족·지역·정치적 배경의 차이를 초월하여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이란 누구나 연대할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공동체는 ‘미얀마인으로서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현실적 조건을 공동체 결속의 기반으로 삼으며, 이는 특히 2021년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분열이 심화된 미얀마 사회를 배경으로 종파와 이념을 초월한 연대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연구자: 미얀마는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이고, 2021년 쿠데타 이후로는 정치적 입장에 따른 분열도 깊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는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난사인: 미얀마 안에 있을 때는 우리도 버마족인지, 카렌족인지, 카친족인지, 산족인지 하는 구분이 일상에서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종교도 다르고, 사는 지역에 따라 생각도 달랐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면 그런 차이가 점점 의미가 없어집니다. 한국 사람이 보기에 우리는 다 ‘미얀마 사람’이거든요. 공장에서 일할 때 사장님은 우리가 어느 민족인지 묻지 않습니다. 다친 사람을 도울 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재워줄 때,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우습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처음부터 어느 한 민족이나 종교만

의 모임이 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미얀마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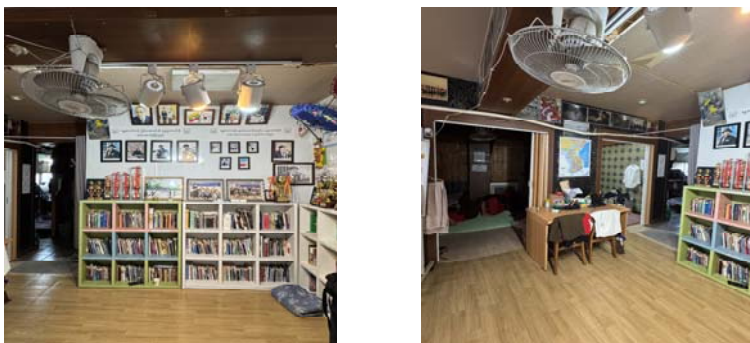
공동체 활동이 확대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 있거나 건강 문제로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임시로 머물 공간조차 없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는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이다. 원칙상 E-9 이주노동자는 근로를 개시한 사업장에서 3년간 계속 근무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유희연 2023).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는 거처와 소득을 동시에 잃는 이중의 취약 상태에 놓이게 된다. 김해시 이주노동자의 가장 일반적인 거주 형태는 공장이 제공하는 기숙사나 같은 국가 출신들끼리 원룸에서 5~6명이 공동 거주하는 환경이다. 직장을 옮기거나 산업재해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처음 김해에 도착하여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머물 공간이 없는 이주민에게 임시 거처의 부재는 생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경남 지역의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은 뜻을 모아 보증금과 운영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그 결과 2014년 3월, 현 위치인 김해시 서상동에 공동체 사무실과 함께 무료 쉼터와 작은 도서관을 개소하였다. 공동체의 물리적 공간은 사무실·무료 쉼터·미얀마어 도서관의 세 기능이 복합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복합성은 공동체 공간이 단순한 행정 사무 공간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만나고 쉬며 정보를 나누는 삶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얀마어 도서관은 모국어로 된 서적과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의 유지와 재생산에 기여하며, 쉼터는 일시적으로 거처를 잃은 이주노동자에게 즉각적인 안전망을 제공한다. 역량접근법의 관점에서 보면 안정적인 거주 공간은 이주민이 다른 역량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거처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취업 활동도, 교육 참여도, 권리 주장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쉼터의 존재는 이 기초 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이주민이 더 넓은 역

량 집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한다.



〈사진 1〉 황금빛살 미안마 공동체의 내부 모습. 미안마 관련 서적과 임시거주공간

공동체 운영은 지금까지 회원들의 소액 회비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유지·운영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에게 실질적인 안식처가 되고 있다. 외부 기관의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 없이 구성원들의 자발적 기여만으로 공간을 유지해 온 이 운영 방식은 공동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재정적 취약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 운영의 이러한 자급자족적 성격은 증여론적 관점(모스 1925, 2025)에서도 이해된다. 회비 납부, 자원봉사, 음식 나눔, 물품 기증 등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기여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가 아니라, 주기(give)·받기(receive)·돌려주기(reciprocate)의 삼중 의무 구조로 이루어진 호혜적 순환이다. 이 순환을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 신뢰와 연대가 구축되고, 공동체는 물질적 자원의 집합체가 아닌 도덕적 의무의 네트워크로서 유지된다. 나아가 구성원 다수가 불교 신자인 미안마 이주민의 경우 타인을 돕는 행위는 세속적 상호부조의 의미를 넘어 공덕(puñña)을 쌓는 종교적 실천으로 이중적으로 동기화된다(Spiro 1982).

이처럼 황금빛살 미안마 공동체의 운영은 경제적 합리성이 아닌 도덕적·종교적 의무의 논리 위에 있다. 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은 교육·문화·지원의 세 범주로 나뉜다. 교육 활동으로는 매월 노동법, 산업안전, 건강, 한국어 및 한국 사회·문화 이해 교육이 진행된다. 이

교육들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가진 구조적 불리함(진윤주 · 홍문숙 2025), 즉 사업장 변경 제한과 이에 따른 노동 협상력의 약화, 산업재해에의 노출 등이 연쇄적 불리함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노동권 교육은 이주민이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진정한 기회(Wolff & de-Shalit 2007)’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 개입이다. 문화 활동으로는 매년 미얀마 설날, 종교 행사, 독립 기념일 등 전통 · 역사 행사가 개최되며, 특히 4월에 열리는 띠얀(Thingyan) 물 축제에는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표적 공동체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 행사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미얀마인들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고 삶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자, 미얀마 이주민의 문화적 존재를 한국 사회에 가시화하는 실천이기도 하다. 지원 활동으로는 미얀마 국내 자연재해 및 내전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 의지가 높은 미얀마 국내 대학생 7명에 대한 전액 장학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 공동체 활동 중에 특별히 자랑할 만한, 혹은 소개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난사인: 미얀마 사정이 워낙 어렵습니다. 쿠데타 이후로 경제도 무너지고, 사람들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도 버거워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공동체에서 미얀마 대학생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지금 7명에게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 친구들이 학업을 마치고 자기 발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자: 한국에 있는 미얀마 유학생이 아니라, 미얀마 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고 계신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난사인: 네, 그런데 마음 아픈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학생 중에 의대를 졸업한 친구가 있었는데, 미얀마 경제 사정이 너무 어려

워서 결국 의사로 일하지 못하고 한국에 와서 이주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그 친구가 의사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아무리 도움을 주어도 본국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공동체는 2021년 군사 쿠데타를 계기로 증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쿠데타 이후 공동체는 30회가 넘는 긴급 지원 활동을 통해 미얀마 국내의 내전 피해 시민과 피난민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앤더슨(Anderson 1992)이 개념화한 장거리 민족주의의 구체적 실천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물리적으로는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본국의 정치적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 초국가적 실천은 커뮤니티가 단순한 상호부조 조직을 넘어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동체의 재정적 여건은 현저히 악화되었다. 구성원들이 가족과 고향의 생존 문제를 우선적으로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위한 자원 동원 능력이 약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쉼터 운영과 교육 활동은 중단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동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연대의 역할을 지켜가고 있다.

연구자: 쿠데타 이후로 공동체의 활동이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

난사인: 가장 큰 변화는 돌아갈 곳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몇 년 일하고 돈을 모아서 미얀마에 돌아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족과 함께 살겠다는 계획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그림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그림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군부가 있는 한 돌아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가족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길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고 살아야 하는데, 한국 제도는 우리가 오래 살 거라는 전제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구자: 공동체 안에서 이런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나요?

난사인: 예전에는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 와서 한국말을 좀 배우고 친구 사귀고 가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더 오래된 고민을 가지고 옵니다. 아이를 한국에서 키워야 하나, 부모님이 미얀마에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비자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우리 공동체도 그런 무게를 함께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짧게 도와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함께 가야 하는 곳이 된 거지요.

쿠데타 이후의 위기는 공동체에 두 가지 상반된 압력을 동시에 가했다. 한편으로는 본국 지원이라는 초국가적 실천의 강도가 높아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귀환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한국에서의 정주가 선택이 아닌 현실적 조건으로 굳어졌다. 이 이중의 압력 속에서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는 순환 이주자들을 위한 일시적 안전망에서 장기 정주민의 삶을 지탱하는 지속적 사회 인프라로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 모든 활동이 외부의 제도적 지원 없이 구성원들의 자발적 헌신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은,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가 단순한 친목 조직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 속에서 이주민 스스로 구성된 대안적 사회 인프라임을 보여준다. 공동체 공간은 거주자의 안정(쉼터), 정보와 권리(교육), 문화적 정체성(문화 행사), 초국가적 연대(본국 지원)라는 다층적 역량 요소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적 기제로서, 구성원들이 한국이라는 낯선 사회에서 실질적 자유를 누리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는 사회적 토대로 기능하고 있다.

4. 커뮤니티 공간의 활용: 새로운 역할의 부여

4.1. 종교와 배움의 공간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의 사무실·쉼터·도서관은 외부인에게는 별개의 기능이 하나의 장소에 집합된 형태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공간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미얀마 이주자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면, 종교적 실천과 배움의 활동이 상호 연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미얀마인 절대 다수의 종교인 불교 실천이 공동체 공간에서 어떻게 재배치되는지 그리고 그것과 짝을 이루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노동권에 관한 학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이상의 두 영역은 모두 누스바움(Nussbaum 2000)이 제시한 핵심 역량과 연관되어 있다. 즉 감정, 실천이성, 유대, 환경에 대한 통제와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역량접근법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조망된다.

미얀마 이주민의 다수가 불교 신자라는 점은 공동체 공간의 성격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미얀마 사회에서 사원과 비구 승가는 그 자체로 일상이자 생활의 일부이다. 출가 의례, 보름달 공양일, 우안거(雨安居) 수행인 ‘와사’ 의식, 가족의 길흉사에 따른 공덕 회향 등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종교적 의미의 망 안에 위치시킨다.

물론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민에게 종교적 활동은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미얀마 사원을 일상적으로 방문하기 어렵고, 모국어로 진행되는 법회나 여러 의례에 참여할 기회도 제한적이다.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단절된 종교적 일상을 일부 회복하는 매개 장소로 기능한다.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 관련 행사, 새해맞이 물 축제인 띠잔(Thingyan) 시기에 의례적 실천, 가정의 길흉사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이 공간에서 펼쳐진다.



〈사진 2〉 새해맞이 축제인 띠잔을 대체한 ‘2026년 미얀마 문화 음식 축제’

www.kci.go.kr

이러한 종교적 실천은 단순히 모국 문화를 타지역에서 실천한다는 차원으로 환원할 수 없다. 디아스포라 정체성이 끊임없이 변형의 과정을 겪는 것과 같이(Hall 1990), 한국에서 재맥락화되는 종교 실천은 모국에서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사원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승가 주도에서 평신도 주도로, 정해진 의례 일정에서 노동시간에 맞춰 조정되는 가변적 일정으로 옮겨오면서, 이들의 종교적 예법은 디아스포라적 형태로 재구성된다.

그럼에도 핵심에 있는 공덕(puñña)의 논리는 유지된다(Spiro 1982). 음식 공양, 회비 납부, 자원봉사, 곤란에 처한 동향인을 돕는 행위는 세속적 상호부조이자 동시에 공덕을 쌓는 종교적 실천으로 이중적으로 의미화되며, 주기-받기-돌려주기의 호혜적 순환과 결합(모스 1925, 2025)하여 공동체의 도덕적 결속을 두텁게 한다.

종교적 실천이 공동체 공간에서 갖는 함의는 정체성 유지에 그치지 않는다. 누스바움이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 감정과 실천이성의 측면에서 볼 때, 종교는 이주민이 불안정한 체류 조건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확보하도록 돕는다. 직장 변경의 제약, 산재 위험 노출, 가족 및 친구와의 분리, 본국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무력감 등 여러 층위의 스트레스가 누적된다. 이런 현실에서 종교 의례의 실천은 개인의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한다.

결국 이는 종교를 사적 신념의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공적 역량의 토대로 사고하는 역량접근법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즉, 공동체 공간에서 불교 실천은 정주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회자원이다.

배움의 공간으로서 공동체가 수행하는 첫 번째 기능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문화 이해 교육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활동의 한 축이다. 이 활동은 흔히 외부에서 평가하는 방식, 즉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빠르게 동화되는지에 대한 척도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동화와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의 목적을 정착국 사회로의 흡수에 둔다.

하지만 역량접근법의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된다. 언어와 문화의 학습은 이주민이 한국 사회 안에서 자기 결정적 행위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도구의 획득 과정이다. 한국어 구사 능력은 행정 절차의 이해, 의료서비스 접근, 자녀 교육 참여, 법적 권리 구제 수단 등 일상의 거의 모든 국면에서 이주민의 실질적 자유를 결정짓는 변수로 작동한다.

한국문화 습득과 한국어 학습이 일반적인 다문화 지원센터가 아닌 이주민 공동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다. 학습자는 모국어로 질문을 던지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동향인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의 문화적 출발점을 부정하지 않은 채 학습을 이어간다. 이는 학습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위계를 완화한다.

학습은 동화의 통로가 아니라,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착지의 제도와 문화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역량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재정의된다. 공동체 공간에서 한국 문화 학습은 정주를 동화의 과정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정착의 깊이를 더하는 실천적 형식으로 변모한다.

배움의 공간이 수행하는 또 다른 기능은 노동권에 관한 실천적 학습이다. 비록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법, 산업안전, 건강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위험을 인식한다. 진운주·홍문숙(2025)이 분석한 바와 같이,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그 결과 임금 체불, 부당 처우, 산업재해에의 노출을 연쇄적으로 누적시키는 불리함의 통로로 작동한다. 울프와 드샬리트(Wolff & de-Shalit 2007)가 명명한 ‘불리함의 군집(clusters of disadvantage)’ 개념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포착한다. 한 영역의 불리함이 다른 영역의 불리함을 촉발하고, 불리함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개인의 역량 전반을 잠식해 가는 구조이다.

연구자: 노동법 교육이나 상담을 받기 전과 후에,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셨나요? 어떤 순간에 ‘아, 이 분이 뭔가 달라졌구나’라고 느끼셨는지 알고 싶어요.

난사인: 공동체에서 미얀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 문제와 관련된 각종 사건들을 상담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각도 점차 변

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이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난사인: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미얀마 단체에서 진행하는 노동법 교육에 참여하던 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약 1년 동안 연장 근로수당을 법에 맞지 않게 적게 계산하여 지급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주에게 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우리 센터의 도움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주는 노동법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 차액을 모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노동권 교육은 이러한 불리함의 균집을 해체하는 시간으로 기능한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시민의 이해가 증가하면서 법과 제도적 정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진전되었다. 하지만 법조문 상의 권리는 그것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노동자에게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 모국어로 노동법의 핵심 조항을 설명하고, 산재 신청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며, 실제 사례를 토대로 권리 행사의 경로를 구체화하는 작업은 추상적 권리를 실질적 자유로 전환시킨다.

울프와 드살리트가 강조한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진정한 기회’는 권리에 관한 정보가 모국어로 매개되고, 동향인 사이의 신뢰 위에서 공유되며,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번역될 때 비로소 형성된다. 이 점에서 노동권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 이주민이 자신의 노동 조건을 협상하고 변경할 수 있는 행위 역량의 확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 공동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불교 실천, 한국 문화 학습, 노동권 교육은 외견상 이질적인 활동이지만 공통의 구조를 공유한다. 각 활동은 이주민이 구조적 불리함에 노출되는 영역인 정신적·문화적 단절, 이주 사회와의 소통 격차, 노동시장에서 위계적 종속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발판이 된다. 즉 기존의 수동적 적응이 아니라 능동적 역량 형성의 통로

를 확보하는 것이다.

종교는 정주의 정신적 기반을, 한국 문화 학습은 일상적 행위 역량의 확장을, 노동권 교육은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과 안전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이주민 공동체가 제공하는 이러한 활동은 서로 연결된 역량의 망을 구성한다. 공동체 공간이 단순한 친목과 상호부조의 장에 국한되지 않고, 정주 역량의 사회적 기반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4.2. 정보와 초국가 연대의 공간

황금빛살 미안마 공동체가 김해시 서상동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부동산 입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 기능을 결정짓는 구조적 환경이다. 제3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상동 일대는 은행, 미안마 음식점, 식료품점, 휴대폰 가게, 김해 외국인 인력 지원센터 등이 밀집한 이주민의 일상 거점이다. 주말과 공휴일이면 부산과 경남 지역의 이주민이 이곳으로 모여든다. 공동체 공간은 이러한 사람과 정보의 흐름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함으로써, 이주민의 일상적 동선 안에 자연스럽게 편입된다. 이 위치적 조건은 공동체가 정보의 유통과 초국가적 연대라는 두 가지 핵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토대가 된다.

공동체 공간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정보의 비대칭을 완화하는 비공식적 정보의 창고로 기능하는 것이다. 일자리 정보, 주거 계약, 의료기관 이용 절차, 비자 갱신과 체류자격 변경, 행정 서류 작성, 분쟁 발생 시의 대응 경로, 한국인 고용주와의 의사소통 요령 등은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과 답답함의 근원이다. 공식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행정 정보는 대부분 한국어 중심이고, 이주민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으며, 결정적 순간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국어로 매개되고 동향인 사이의 신뢰 위에서 공유되는 비공식적 정보는 이러한 공식 채널의 공백을 메우는 결정적 자원이다.

이러한 정보 흐름은 노지현·구동희(2016)가 지적한 연쇄이주의 메커니즘과 맞물려 작동한다. 먼저 정착한 이주민이 축적한 경험은 새로 도착한 이주민에게 압축적 형태로 전수되어, 정착 초기의 시행착오를 줄이

고 적응 비용을 낮춘다. 공동체 공간은 이러한 세대 간·집단 간 지식 전달의 제도화된 무대로 기능한다. 동시에 이 정보망은 이주민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공동체 자체의 집합적 기억으로 축적된다. 이 점에서 공동체 공간은 단순한 정보 게시판이 아니라 이주민 집단의 제도적 기억을 보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아카이브에 가깝다.

공동체 공간의 두 번째 차원은 본국과의 초국가적 연대를 실천하는 장으로서의 성격이다. 제3장 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황금빛살 미안마 공동체는 2021년 군사 쿠데타 이후 30회가 넘는 긴급 지원 활동을 통해 미얀마의 시민과 피난민을 지원해 왔다. 모금 활동, 물품 모집, 후방 지원 네트워크의 구성, 한국 시민사회와의 연대 활동 등이 공동체 공간을 거점으로 기획되고 실행된다.

연구자: 미얀마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하는 분들의 마음과 상황이 궁금해요.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도 궁금하고요. 바자회를 하면서 미얀마 소식을 들으실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멀리 있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난사인: 현재 미얀마를 위한 모금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자회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 체육대회, 영화제, 여행 프로그램, 그리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기념품이나 그림, 귀중품 등을 경매하는 행사 등 다양한 형태의 모금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연구자: 이러한 활동이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나요?

난사인: 사실 2021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기 전, 민주적으로 선출된 민간 정부 시절에도 저희 황금빛살 미안마 공동체는 여러 차례 모금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 이후 군부의 무차별적인 공습과 폭격으로 마을이 불타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피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군사독재의 폭력과 탄압으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

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장거리 민족주의(long-distance nationalism)의 구체적인 양상이다(Anderson 1992). 디지털 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 이주민이 본국의 정치 상황에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 물론 온라인의 흐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오프라인의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 공동체 공간은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접합점에 위치한다. 모금 회의가 열리고, 지원 활동이 분담되며, 본국에서 도착하는 정보가 공유되며, 슬픔과 분노가 집단적으로 처리되는 자리이다. 즉 정치적 행위가 단지 표명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수행되는 무대로서 공간이 작동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한다. 정치적 문제로 인한 본국으로 귀환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은 이주민의 정치적 개입을 약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한다. 일상적 생계의 무대가 한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본국에 대한 정치적 책임감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한 위치에서 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정치적 참여의 자유, 개인이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 자유(센 1999, 2013)는 이러한 초국가적 행위 속에서 구체화된다. 본국 지원에 참여하는 행위는 구성원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부여하며, 이는 정착지에서의 무력감을 상쇄하고 정주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돕는다. 강요된 망명이 목적 있는 현존으로 전환되는 지점이다.

이러한 초국가적 실천은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새로운 형성으로 이어진다.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는 종교, 민족, 지역, 정치적 배경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초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이라면 누구나 연대할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를 지향한다. 이는 버마족과 소수민족 간의 긴장, 종교 간 갈등, 군부와 민주화 진영의 대립이라는 미얀마 사회 내부의 깊은 균열과 갈등이 그대로 한국의 이주민 공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의식적 실천의 결과다.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고정된 기원으로서 회귀가 아닌 끊임없는 생산

의 과정이며(Hall 1990),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얀마인’이라는 정체성은 모국에서의 어떤 정체성과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집합적 자기 규정이다. 정착지에서의 공동의 처지가 모국에서의 차이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연대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정보와 초국가 연대의 공간으로서 공동체는 두 개의 상이한 지리적 스케일에서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김해라는 정착지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미시적인 공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얀마와 한국을 잇는 초국가적 연대의 결절점이다. 이 이중적 스케일이야말로 공동체 공간을 단순한 지원 서비스가 아닌 정주 역량의 사회적 기반으로 만든다.

일상적 정보의 유통은 정착지에서의 실질적 자유를 확장하고, 본국에 대한 초국가적 연대는 정주의 의미와 정치적 행위 능력을 동시에 회복시킨다. 제4장 1절에서 살펴본 종교와 배움의 기능과 더불어 정보와 연대의 기능까지 포함할 때 비로소 공동체 공간이 수행하는 다층적 역할의 전모가 드러난다. 다음 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이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5. 나가며: 이주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선

본 연구는 이주민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커뮤니티 공간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고, 어떤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미얀마 이주민 공동체인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는 2009년 만들어진 이래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3장과 제4장에서 살펴본 경험적 양상을 통해,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의 사무실 · 쉼터 · 도서관이라는 삼중 공간은 종교적 실천, 한국 사회 · 문화 학습, 노동권 교육, 일상적 정보의 유통, 본국과의 초국가적 연대라는 다층적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이를 통해 미얀마 이주민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적응의 과정과 함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정주 역량의

사회적 기반으로 작동한다. 이는 단순한 친목 조직이나 상호부조의 장을 넘어선 새로운 종류의 사회 인프라이며, 외부의 제도적 지원 없이 구성원의 자발적 헌신만으로 유지되어 온 대안적 실천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의 다층적 기능과 사회적 의미는 한국의 이주 정책 안에서 적절히 인지되거나 평가되지 못했다. 한국의 이주 정책은 1990년대 이후 고용허가제(E-9)를 중심축으로 발전해 왔으며, 사업장 변경의 제한, 가족 동반 금지, 단기 체류 기간 설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주민을 ‘순환하는 노동력’으로 규정해 왔다(진윤주·홍문숙 2025). 그렇다면 한국의 이주 정책은 왜 여전히 ‘순환’의 패러다임을 고수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답은 더글러스(Douglas 1966)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물건(matter out of place)’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더글러스는 더러움이라는 관념이 객관적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분류 체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사회적 반응임을 보였다. 어떤 것이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본래 속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따라서 기존의 범주 체계를 흐트러뜨리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국민국가는 ‘한 민족, 한 언어, 한 영토’라는 선명한 분류 체계를 전제로 작동하며, 이주민은 이 체계 안에서 어느 한 범주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는 범주적 변칙(categorical anomaly)으로 인식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외국인이지만 외국에 있지 않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지만 국민이 아니다. 이러한 변칙성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이주민을 향한 거부감이나 공포로 표현되며, 더 깊은 차원에서 그 변칙을 제거하거나 격리함으로써 분류 체계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충동으로 이어진다.

결국 한국의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에게 부과하는 일련의 제한들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정주를 차단함으로써 변칙의 누적을 방지하고 분류 체계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청소(cleansing)’의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진윤주·홍문숙(2025)이 분석한 구조적 불리함은 그 기저에 이러한 분류 정치가 작동한 결과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가진 ‘다문화’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이어진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정책은 종종 이주민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존중하

는 외양을 갖추지만, 그 실질은 이주민을 ‘관리’하고 점진적으로 ‘한국인화’하려는 동화주의적 충동을 내장한 경우가 적지 않다. 더글러스의 관점에서 이는 변칙적 존재를 분류 체계 안의 익숙한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는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과 다르지 않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이 정부 산하 기관에서 일방향적으로 전달될 때와 이주민 자신의 공동체 공간에서 자기 결정적 형태로 이루어질 때 그 의미는 결정적으로 다르다. 전자가 동화의 압력을 내포한다면, 후자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착지의 제도와 문화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의 확장이 된다. 홀(Hall 1990)이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끊임없는 생산의 과정으로 본 것, 더글러스가 변칙적 존재를 새로운 질서 형성의 에너지로 본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두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이주민 지원 정책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의 차원을 넘어 불리함의 군집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이주민 지원이 식료품 제공, 일회성 의료비 지원, 명절 행사 후원 등 단편적이고 시혜적인 물질 지원에 치우쳐 왔다면, 새로운 정책은 울프와 드샬리트(Wolff & de-Shalit 2007)가 제시한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진정한 기회’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주민이 직면하는 불리함은 개별적이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누적되는 군집의 형태로 작동한다. 사업장 변경의 제한이 임금 체불에 대한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그것이 다시 산재 위험에의 노출과 의료 접근의 제약으로 이어지며, 최종적으로 가족과의 분리, 사회적 고립, 정치적 무력감의 누적으로 귀결되는 연쇄적 구조다. 정책의 초점은 이 연쇄의 어느 한 마디를 끊는 데 두어야 하며, 이는 형식적 권리의 부여를 넘어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의 확보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변경 제한의 완화, 장기 체류자격으로의 전환 경로 마련, 가족 동반의 단계적 허용, 산재 신청 절차의 다국어 지원 등이 우선적 검토 과제로 떠오른다.

둘째, 황금빛살 미안마 공동체와 같은 이주민 자발적 커뮤니티 공간을 공공 서비스와 결합한 ‘정주 역량 강화 허브’로 공식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제4장의 분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주민 공간은 이미 종교적 실천, 학습, 노동권 교육, 정보 유통, 초국가적 연대를 아우르는 정주 역량 강화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모든 활동은 구성원들의 소액 회비와 자원봉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급자족적 운영 방식 위에 서 있으며, 2021년 쿠데타 이후 본국 지원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재정적 취약성은 심화되고 있다.

이미 작동하고 있는 사회 인프라가 자원 부족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별도의 다문화 지원 시설을 새로 짓고 관리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동화주의의 위험을 안고 있다. 보다 합리적인 방향은 이주민 주도의 공동체 공간을 인정하고, 그 자율성과 운영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공공 자원과 서비스를 결합하는 것이다.

한국어 교육, 노동법 상담, 의료 접근 안내, 심리 지원, 자녀 교육 정보 제공 등의 공공 서비스가 이주민 자신의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매개될 때,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은 모두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때 핵심은 정부가 공간을 만들고 이주민을 그 안에 수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이주민이 만들어낸 공간에 정부가 자원을 흘려보내는 방식의 전환이다.

이 두 정책 방향은 이주 정책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함축한다. 이주민을 변칙으로 규정하고 청소하려는 분류 정치에서(Douglas 1966), 변칙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임을 인정하는 재범주화(recategorization)의 정치로의 전환이다. 황금빛살 미얀마 공동체에서 형성되는 ‘한국에 사는 미얀마인’이라는 정체성은 미얀마 본국에서의 어떤 정체성과도 동일하지 않으며, 한국 사회의 어떤 기존 범주에도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집합적 자기규정이다.

이는 정착지의 한국인과의, 모국의 미얀마인과의 구별되는 제3의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이다. 이주 정책의 과제는 이러한 새로운 집합적 정체성을 기존 범주 안으로 끼워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다양성을 새로운 정상성으로 받아들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청소’에서 ‘공존’으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본 연구가 제안한 정주 역량 강화 허브 모델의 구체적 운영 설계와 효과 측정에 관한 후속 연구가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이

주민 커뮤니티를 정주 역량의 사회적 기반으로 재인식하는 이론적 · 정책적 시각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이주 정책이 직면한 패러다임 전환의 한 방향을 가리키는 시도로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 고영우 외(2023).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20: 지역노동시장의 동태적 변화 연구』,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노지현 · 구동회(2016). 김해시 외국인 이주자의 공간적 분포와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지> 50(4), 411-423쪽.
- 모스, M.(2025). 증여론(박세진 역), 파이돈(원서 출판 1925).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2026). 2025년 12월호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과천: 법무부.
- 센, A.(2013). 자유로서의 발전(김원기 역), 갈라파고스(원서 출판 1999).
- 유희연(2023).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의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세종: 국토연구원.
- 이혜경 외(2020). 『이민정책론』, 서울: 박영사.
- 정현주(2018).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의 공간적 변증법, <공간과 사회> 6, 264-272쪽.
- 진윤주 · 홍문숙(2025). 글로벌사우스 이주노동자의 정주와 웰빙-역량 접근법과 불리함 개념의 융합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21, 95-112쪽.
- 차철욱 · 차윤정(2013). 김해 이주노동자들의 공간 의미화와 ‘외국인 거리’의 형성, <한국민족문화> 47, 361-396쪽.
- Anderson, B.(1992). *Long-distance nationalism: World capitalism and the rise of identity politics*. Centre for Asian Studies Amsterdam.
- Cohen, R.(1997).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UCL Press.
- Douglas, M.(1966).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Routledge & Kegan Paul.
- Evans, P.(2002). Collective capabilities, culture, and Amartya Sen’s Development as Freedom.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7(2), pp.54-60.
- Glick Schiller, N., Basch, L., & Blanc-Szanton, C.(1992). Towards a transnational

- perspective on migration: Race, class, ethnicity, and nationalism reconsidered.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645(1), pp.1-24.
- Hall, S.(1990).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n J. Rutherford (Ed.),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awrence & Wishart, pp. 222-237.
- Ibrahim, S. S.(2006). From individual to collective capabilities: The capability approach as a conceptual framework for self-help.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7(3), pp.397-416.
- Nussbaum, M. C.(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The capabilities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fran, W.(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 1(1), pp.83-99.
- Spiro, M. E.(1982). *Buddhism and society: A great tradition and its Burmese vicissitudes*(2nd e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tewart, F.(2005). Groups and capabiliti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2), pp.185-204.
- Wolff, J., & de-Shalit, A.(2007). *Disadvantage*. Oxford University Press.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검색일: 2026.05.15.)

김해시 통계포털. <https://stat.gimhae.go.kr>(검색일: 2026.05.15.)

필자 소개

성 명 정정훈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857-1
전자우편 blue3j@gmail.com

성 명 진윤주
소 속 경성대학교
주 소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전자우편 blessjin@ks.ac.kr

www.kci.go.kr

■ Abstract

Migrant Community Space and Transnational Collective Capabilities - A Case Study of the Golden Light Rays Myanmar Community in Gimhae -

Jeong, Jeong-hun · Jin, Youn-joo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yungsung University)

This study ethnographically examines how a migrant-initiated community space is formed and what social functions it performs. Drawing on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Golden Light Rays Myanmar Community in Gimhae, South Korea, it shows that the community's tripartite space—office, shelter, and library—performs multilayered functions: religious practice, learning of Korean society, culture, and labor rights, circulation of everyday information, and transnational solidarity with the homeland. Combining the literatures on diaspora, transnationalism, and long-distance nationalism with the capability approach, the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transnational collective capabilities, whereby collective capabilities formed in the place of settlement flow back to expand the capabilities of those in the country of origin. Since the 2021 military coup foreclosed the possibility of return, the community has been transforming from a temporary safety net for circular migrants into a sustained social infrastructure supporting long-term settlers. On this basis, the study proposes policies that dismantle the clusters of disadvantage and that formalize migrant-led spaces as hubs for strengthening settlement capabilities, arguing for a paradigm shift in migration policy from “cleansing” to “coexistence”.

[Key words] migration, migrant community, settlement capability, transnational collective capabilities, Myanmar migrants, capability approach

투고일 2026. 06. 12 / 심사일 2026. 07. 15 / 게재확정일 2026. 07. 15